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김상준기자 | 승인 2025.07.29 17:24 | 11면

신속하게 피해시설 점검·복구작업에 구슬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는 합천군 일대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시설 점검 및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는 합천군 일대 기록적인 강우(698mm)로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시설 점검 및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사가 관리하는 양·배수장 6개소 침수, 용수로 약 20km 파손 및 토사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복구로 폭염으로 앞당겨질수 있는 출수기를 대비해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원 합천지사장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재개를 위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저수지, 양배수장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구복구비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가회면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가 침수주택 내부로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 및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등 수해복구 활동도 실시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